

천국으로의 스카우트

창원파티마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송○(M/39)
- 진단명: 췌장암
- 입원 경과: 2018년 1월 췌장암(3기)으로 A병원에서 진단. 항암치료 및 수술 불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2018년 1월 G대병원에서 비타민 요법(대체의학) 시행함. 보존적 치료 유지 중 연고지 관계로 본원 혈액종양내과 내원하여 호스피스 권유받고 2018.04.06.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본원 응급실 통해 호스피스 병동 입원함.

본원 호스피스병동 입·퇴원 반복함#9

- #1 2018.4.6~4.10 #2 5.30~6.9 #3 7.29~8.13
#4 8.20~8.24 #5 7.29~8.13 #6 8.20~8.24

- #7 8.27~8.28 #8 2018.10.21~2019.1.5
#9 2019.1.6~2.25

PTBD 관련 외래 처치

2018.10.23 PTBD re-position/ 2019.02.01. PTBD reinsertion함.

<입원 시 상태>

- 활동상태: ECOG 3/ PPS 90%
- 의식 상태: 혼돈
- 통증: NRS 4~6점 (복부)
- 식이: 일반식이. 최근 오심, 구토 있어 식이 섭취량 감소
- 신체 사정: 복부 압통
- 활력 징후: 정상 범위

진료 부분

<병력>

- 2018.01 타 병원(A병원)에서 췌장암(stage III) 진단받음. 상장간막동맥 전이로 악화되는 소견 보임.
- 2018.02 타 병원(G대병원)에서 비타민 요법 시행함
- 2018.04.06 복부 통증 및 전신 쇠약감을 주호소로 응급실 내원 후 황달 증상 및 빌리루빈 수치 상승으로 악화되는 소견 보임. 암의 진행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무의미한 상태로 호스피스 권유 받음.

- 2018.08.17 의식 저하 및 섬망, 황달 증상 악화됨, 원위부위 총담관 전이소견 보임. 경피적 담즙 배액술 권유받고 시술 시행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 # 1. 복부 통증 및 팽만감 (평가)

- 말기 췌장암 및 다발성 전이 소견
- 복부 통증 및 팽만감 호소함.
- 복부 불편감으로 식이 섭취 불량, 오심, 구토 호소함.

(치료 계획)

- 최저 통증은 3~4점 유지되며, 최고 통증은 7~8점으로 심한 통증 호소함.
- 수액에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150mg 혼합하여 지속적으로 투약 유지함.
- 돌발성 통증 시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10mg 1A IV 투여함.
- 진통제 투여 15분 이내 통증 재사정 시행하여 통증 점수가 감소되었는지 확인함.

(반응)

- PRN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통증 호전 보임.
- 통증 있을 시 통증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임.
- 복부 통증 완화되어 소량의 식이 섭취 권장함.

2. 섬망

(평가)

- 밤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함.
- 옆에 누가 있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 자주 보임.
- 회진 시 의료진과의 대화 중 지리멸렬한 표현과 눈 맞춤이 되지 않음.

(치료 계획)

- 조용한 환경조성을 위해 1인실로 이동함.
- 증상 발현 심할 시 Ativan 2mg IV 투여하도록 처방함.
- 필요 시 추가약물로 Haloperidol 5mg IM 투여토록 처방함.
- 혼돈과 지남력 상실로 상해 위험 예방을 위해 억제대 처방함.

(반응)

- 섬망 증상 심화되어 Ativan 2mg IV 투여 후 수면하는 모습 보임.
- 조용한 환경 조성되어 안정함.

간호 부분

1.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배 아파서 바로 누워있지 못하겠어요.”
- “통증으로 잠을 못 자고 음식 섭취 시 통증이 있어 밥을 못 먹겠어요.”라고 함.
- 복부 통증으로 일상 생활 힘들어하며 밤에도 인상 쓴 표정으로 깊은 수면 못 취함.
-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관찰됨.

(계획 및 중재)

- 통증 및 신체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함.

- 환자와 가족에게 비약물적 통증 중재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해 교육함.(마사지, 산책, 요법, 영적 지지, 기분전환)
- 액에 마약성 진통제 수액에 morphine 150mg 20cc/hr 주입속도로 투약 유지 중임.
- 돌발성 통증 호소 시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10mg IV 투여 시행했음.
- 보호자 부인에게 통증 사정 도구를 교육하여 통증을 표현하도록 함.
- 통증 호소 시 호출 벨 사용법과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함.

(평가)

- PRN 진통제 투여 후 통증이 해소되고 조절됨을 이야기함.

- 환자와 가족은 비약물적 중재를 통해 통증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취함.

2. 임종 과정과 관련된 우울

(사정)

- “제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라 말함.
-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임.

(계획 및 중재)

- 우울한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함.
- 수용하는 태도로 환자의 말을 경청하여 들어줌.
-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있어 주며 대화시간을 갖도록 함.
- 힘들 때 옆에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

고 마음을 편히 갖도록 함.

-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신체접촉을 통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함.
- 영적 위안이 되는 기도문 또는 찬송가를 함께 읽으며 정서적 지지함.
- 종교적 방문(목사님, 교회 지인)을 통해 영적 지지 받도록 함.
- 봉사자와 함께 요법을 통해 기분전환 도모함.

(평가)

-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라 말하며 미소 띄움.
- 기도문을 읽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모습 보임.
- 이전보다 표정이 밝아짐.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형제 2남 중 장남
- 결혼한 지 3년으로 암 진단받던 해에 2세 임신 계획이었고, 슬하에 자녀 없음.
- 큰아버지가 목사여서 이름을 성경 인물 “욥”으로 지었고, 착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함.
- 교회 주일학교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내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함.
- 호스피스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일요일마다 주일예배를 위해 외출함.

<가족력>

- 부친(66세), 무직, 창원 거주
- 모친(64세), 주부
- 남동생(36세) 에어컨자영업, 기혼
- 배우자(40세), 분식 가게 운영, 개신교, 아버

지가 목사여서 환자와 신앙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잘됨.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분식 가게를 닫고, 환자 간병에 투신함.

- 부인은 남편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함.
-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부인은 갇아야 하는 빛에 대한 걱정이 커짐.

<경제적 상황>

- 자가(대출이자가 있음)
- 지역의료 보험
- 집과 가게가 거의 대출로 이루어져 6개월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집 대출이자와 가게 월세가 총 200만원이 나가고 있음.

<사정>

- 보호자 부인은 환자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

을 만들어주고 싶어 함. 평소 환자가 힘들 때마다 침상에서 성가를 들으며 쉬고, 힘을 냈는데 그 성가를 생음악으로 들려주고 싶다고 함.

- 환자는 신앙을 바탕으로 임종에 대해 순응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음. 그러나 말기에 모친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 더 이상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답답함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모친과의 관계가 불편해짐.

환자의 모친은 아들을 보내기가 힘들어 계속 방문 시 마다 아들에게 헛된 희망을 말로 표현함. 모친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함. 부인이 주로 간병을 하였으나, 모친께서 계실 때는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겨 잦은 다툼이 생기기도 함. “포기하지 마라, 난 기적을 믿는다.” 등등. 환자의 모친은 며느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남편이 죽기를 바랄 수 있느냐며 가족 관계 안에 불화가 생겨남.

<개입 및 결과>

- 환자의 깊은 신앙과 다학제 접근과 서비스를 통한 질병 진행 과정 및 임종의 수용을 도모

하여 임종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용함.

- 부인과 모친을 각각 따로 전환요법 통해 갈등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심리 정서적 지지함.
- 심리 정서적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자기표현을 독려하여 감정 환기를 위한 요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배우자가 스스로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사별에 대한 슬픔과 우울의 감정을 해소하고 완화하여 건강한 자기인식을 강화함. 재정적 부분의 경우 급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 환자 임종 후 천천히 정리하기로 함.
- 평소에 환자가 좋아하던 CCM 가수 부부에게 메일을 보냄. 사연을 듣고 중국 공연 중이던 CCM 가수 부부가 오기로 약속하여, 환자 몰래 호스피스 팀원들과 행사 기획을 의논 후 친지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행사 소품을 만들고 콘서트장을 준비함. 환자와 가족들과 호스피스팀원들이 함께 공연을 참여하였고, 환자가 좋아하던 성가뿐 아니라 평소 가족들이 환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응원 동영상 공개와 부인은 편지글을 읽으며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짐.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양가 집안 모두 기독교이심. (장인은 목사이심)

환자와 배우자는 신앙적인 면에서 절대자의 부르심으로 동일시하고 있으나, 방문 신도들의 진한 기도를 자주 받으심. 평상시도 침대 생활을 하면서도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모습을 보이심.

<신앙에 대한 환자의 고백>

신앙에 대한 믿음은 굳건할 정도로 튼튼하였고, 병실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심. 추가적인 처치는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신에 대한 믿음이 모친하고의 갈등 부분으로 “어머님이 마음을 내려놔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신에 대한 모친의 기대와 믿음의 방향이 부부의 믿음방향과 달라 연명을 하고 있고, 더욱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심.

“저는 아내와 이미 마음을 굳혔고, 천국으로의 여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영적 돌봄>

환자와 부인과 모친의 신앙에 대한 기대

는 원목 수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영적 돌봄을 해드리고, 격려도 함께하고,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 드립니다. 정서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조용한 기도 속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봉사자 부분

송O 님과의 첫 만남은 2018년 5월 7일! 멀리서 봐도 영화배우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거동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왜 벌써 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병실에서 인사를 하며, 발 마사지를 권해드리니,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분 옆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젊은이가 조용한 성격, 꽤나 의젓한 모습은 계속 그분에게 쏠리는 듯했다. 3년 전에 연애 결혼을 하고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는 이제야 2세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췌장암 말기진단이라니! 처음에는 보통으로 내원했지만, 평상시 체격도 좋고 병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런 그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듣고, 나이가 든 내가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호스피스를 알기 전후의 내 모습에 잠시 반성도 하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요약해보면 A병원 가서 확진을 받고자 했을 때, “항암 해도 6개월, 안 해도 6개월...”이라고 했고, 부부는 신중한 생각의 정리 끝에 항암은 접고, 비타민 요법을하기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

원에 내원하였고, 수선생님의 구체적인 설명 덕분에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인근 G병원에서 비타민 요법을 받으며 가정에서 지냈고, 보통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다고 한다. 큰 의지가 되는 부인의 간호는 섬세하고 따뜻해 보였다. 병실에 있었지만, 아직도 신혼부부 같아서 마음이 찡하기도 하였다. 보통으로 입원하실 때마다 일주일도 채 계시지 않고 “아직은 집이 좋아요.”하며 퇴원하셨고, 집으로의 방문도 괜찮으신지 의향을 물어보고 가보았을 때, 가정에서도 아내의 섬세한 손길이 더욱 돋보였다. 그래서인지 큰 걱정은 되지 않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어보았다.

#9 병원 입원 후 나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부인에게 다가갔다. 워낙 신앙적 배경이 튼실하다 보니, 원망보다는 행복함이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여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알다시피 우리의 것이 아니오니, 기도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자고 반복해서 말해 주었다. 나와 의 시간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나도 건강이 허락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봉사인데...”라며 말하기도 하였다. 고민거리는 장

남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부인에 대한 애뜻함 등이었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늘 성경책을 침대 한쪽에 두고 읽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눈시울이 적기도 하는 모습... 대화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남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고...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분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분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였고, 그분에게 13개월은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었다고... 준비된 마지막 시간은 너무도 평화롭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 속에서 영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의 손에 묵주 알은 실새 없이 들고 있었다. 바로 '천국으로의 스카우트'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2020년 상반기 신입회원 명단

▶ 평생회원

- 익산성모병원 : 김옥희

▶ 일반회원

- 대구대교구 가톨릭 가정호스피스센터 : 정순교, 최인조

- 대전성모병원 : 민혜련, 이숙현, 차경화

- 부산성모병원 : 김동근

- 부천성모병원 : 문영희, 박신재, 이준영

- 서울성모병원 : 강용화, 김경율, 김명숙, 김봉옥, 김희은,
송희선, 유지현, 이명애, 조정옥, 한영진

- 여의도성모병원 : Sr.조진희

- 하랑내과호스피스의원 : 송영근